

“유치하지만 웬지 웃겨”

SBS ‘질투의 화신’ 수목극 시청률 1위 ... 공효진·조정석 ‘케미 매력’ 어필

SBS TV ‘질투의 화신’이 신데렐라 이야기에 노골적인 B급 코미디를 가미하는 전략으로 수목극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 공효진과 조정석이라는, 설명이 필요 없는 두 주인공과 이들에 비해 10살이나 어림에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뽐내는 데 성공한 고정요의 조화도 기대 이상이다.

사랑과 질투에 빠진 자들이 보일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한껏 희화화하고, 사랑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황당한 일들의 최대치에 도전하는 ‘질투의 화신’은 남녀노소를 사로잡지는 못하지만 한밤중 미치도록 웃게 만드는 힘이 있다.

여주인공 표나리(공효진 분)는 생계형 캔디와 신데렐라 이야기를 결합해 탄생한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공효진의 연기도 그래서 사실 새롭지는 않다. 공효진은 이러한 캐릭터에 최적화된 배우로, 일찌감치 ‘공블리’라는 애칭도 그 덕에 얻었다.

‘파스타’ ‘최고의 사랑’ ‘주군의 태양’ 등에서 보여준 공효진의 사랑스럽고 코믹하며, 훈수 같은 애절한 연기는 ‘질투의 화신’에도 그대로 재현된다.

그는 이런 역할은 눈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능수능란하고, 여전히 그 효과가 유효함을 시청률로 보여주고 있다. ‘질투의 화신’은 이런 로맨틱 코미디의 장인인 대우를 세류 기조공사를 든든히 한 뒤, 발칙한 비틀거림으로 신나게 변주를 하고 있다.

시작은 짝사랑이었다. 가상캐스터 표나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고지순하게,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마초 이화신을 홀로 사랑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애정의 삼각관계(크게는 오각관계)로 발전했다. 또 그 과정에서 짝사랑의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다. 이화신이 표나리에게 애정을 구걸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질투의 화신’은 이러한 짝사랑의 반전이 주는 짜릿함과 쾌감이 더해, 어쩌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동력인 질투의 무시무시하면서도 애처로운 화학작용을 눈물이 속 빠질 만큼 웃기게 그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화신이 만취해서 표나리의 요구에 맞춰 온갖 장르의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드라마의 절정인가 했더니, 29일에는 더한 것이 나왔다. 갯벌에서 이화신과 고정요(고정요)가 표나리를 놓고 펼친 진흙탕 육박전은 입이 딱 벌어지게 할 만큼 압권이었다.

질투에 눈먼 두 엘리트 남자가 벌이는 이질투구는 앞뒤 사정 모르고 보면 딱 처절한 누아르(폭력범죄영화)다.

이화신과 고정요의 눈빛과 감정은 “니가 가라. 하 와이”만큼 비장하고, 이들의 감정은 소지섭과 강지환이 죽을 때까지 치고받았던 ‘영화는 영화다’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 갯벌 전투는 너무 웃겨 배를 안고 넘어지게 만들어버린다.

갯벌 싸움에서 ‘잘못된 만남’이 울러 퍼질 때는 절



로 흥겹게 춤이라도 추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그런데 작가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갯벌을 벗어난 이화신의 등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산나지에도 많은 시청자가 호흡 곤란 증세를 느꼈다. ‘올드보이’의 비장한 산나지가 단박에 코믹하게 패러디되는 순간, 사람은 등에 잘거머리처럼 붙어 움직이는 산나지이고, 질투는 유치잔란한 ‘뽀’(‘쓸데없는’의 전라도 사투리)짓을 유발한다고 드라마는 유쾌하게 노래한다.

연철뉴스



“리틀 정보석” 되고 싶었죠”
MBC 50부작 ‘몬스터’ 끝낸 강지환

최근 50부작 MBC TV 월화드라마 ‘몬스터’를 끝낸 배우 강지환(39)이 제작 과정의 뒷얘기와 솔직한 감상을 소개했다.

강지환은 최근 서울 한남동 한 음식점에서 가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극중 약의 축이자 전적이던 정보석(54)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표사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보석이 향남하고 연기할 때 제일 떨렸었다”면서 “보석이 형님은 제가 어릴 때 영화에 찍을 그랬던 분이요 데뷔 때 ‘리틀 정보석’이라는 애기를 듣기도 해서 보고 싶었고 잘 보이고 싶었다”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어 “산배남한테 연기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고 예의를 갖춰 잘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배려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셔서 웃으면서 끝낼 수 있었다”고 안도했다.

그는 조만간 정보석 집으로 놀러 간 다려진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극 중 정보석이 연기한 변일재에 대한 사무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온갖 악행을 저지른 변일재는 마지막에 교수형을 당한다.

강지환은 “사형집행 장면은 세트장에서 촬영했는데, 극 중이지만 고생

을 많이 해서 그런지 보석이 형님이 두건을 쓰고 처형되는 장면을 제 눈에 직접 보고 싶어 일부러 가서 봤다”고 했다.

‘몬스터’는 거대한 권력집단의 음모에 희생당한 한 사내의 복수극을 그렸다. 강지환은 의료재벌의 상속자지만 이모부 변일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나 이름과 얼굴을 바꾼 채 복수를 해나가는 주인공 강기탄을 연기했다.

강지환은 50부 대작인 탓에 8개월에 걸친 제작기간이 길기도 했지만, 촬영도 중우여곡절이 많아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작품은 정말 힘이 들어서 중간에 도망치고 싶었다”면서 “가장 힘든 건 사고와 부상이었다는데 장영으로 고생하고 밤에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촬영도중 화장을 입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지환은 2002년 뮤지컬 ‘록키 호러스’로 데뷔했으며 2005년 MBC TV 일일드라마 ‘군세어라 금순아’ 주연을 맡으면서 얼굴을 널리 알렸다. 2008년 KBS TV 드라마 ‘레도 홍길동’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 스타로 발돋움했다.

연철뉴스



박효신? 갓효신~ 7집 음원차트 점령

가수 박효신이 6년 만에 발표한 정규 앨범이 음원차트를 점령했다.

3일 공개된 정규 7집 ‘아이 엠 어 드림어’(I am A Dreamer)의 더블 타이틀곡 ‘흙’과 ‘뉴티플 투마로우’는 엠넷 닷컴, 빅스, 지니 등 8개 음원차트 1, 2위를 휩쓸었다.

또 선공개 곡 ‘숨’을 비롯해 수록곡 ‘원더랜드’, ‘더 드림어’, ‘아이 엠 어 프렌드’, ‘리라’ 등 수록곡 대부분이 엠넷닷컴과 지니 등 각종 차트 10위권에 대해 진입해 ‘줄 세우기’를 했다.

임장정, 불행간사춘기, 한동근 등 차트 최상위권을 지키던 가수들을 제친 박효신은 당초 예견된 대로 자신의 곡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번 앨범은 절제하면서도 말하듯 노래한 박효신의 창법과 세련된 편곡의 서정적인 사운드, 위로를 주는 따뜻한 노랫말 등 오랜만에 정규 앨범을 듣는 맛을 찾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타이틀곡 중 하나인 ‘흙’은 무려 6분8초짜리 대곡(大曲)으로 지금과 같은 음원 시장에서는 여

가수들이 시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박효신 스타일의 발라드를 탈피해 새로움을 추가한 점도 눈길을 끈다.

누리꾼의 반응은 음원 공개와 함께 뜨겁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와 각종 커뮤니티를 장악했으며 멜론 감상평에는 “첫 곡부터 미쳤다” “가 전체에 갓효신이 내려왔다” “뽀한 진행을 버리고 대중성을 택하지 않았으나 대중이 그의 노래를 좋아해 대중성마저 가진 가수” “이게 진짜 음악인 듯” 등의 글이 쏟아졌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8일부터 약 2주간 총 6회에 걸쳐 잠실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해 7집의 곡을 라이브로 들려준다.

연철뉴스

TV 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윤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월에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골지라 30 아침 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K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1대100 (재)	00 TV속의 TV	00 TV블로그 골지라 05 특집 다큐멘터리 (문명) 55 닥터 365(재)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2016 DMC패스티벌 레전드 토토가 1부 스페셜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30 TV블로그 골지라 55 세상발전 유래가 55 닥터 365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코쇼 가요4번지 55 별별가족	00 이웃집 찰스 (재)		
2	00 2016 평창대관령음악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뚝? 뚝! 키즈스쿨 55 파워배틀 외치기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버터민 (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외와 생활 10 닥터365 15 특집 생방송 동행의뢰에서 길을 찾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골지라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별난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맨인블랙박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구미리 그린 달빛)	00 월화특별기획 (개리어를 끄는 여자)	00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 려)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00 우리동네 예제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10:30 한국기행(재)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9:50 극한직업 (가을 인심 가공)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세계의 폭포 양해폭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복어 김치찌개 판공소스 시금치무침)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레빗 15:20 아동명명 귀여워(재)	20:40 다류 오늘 (대박이 주렁주렁)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35 오솔 삼지2 15:45 코코몽 3	20:50 세계테마기행 (텐산이 좋은 땅, 중앙아시아 - 텐산, 대지를 적시다)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1:30 한국기행 (여름과 가을사이-사랑을 만나다)
07:00 레이디 비그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재)	21:50 EBS 다큐프라임 (900개의 영혼, 파우어유기니 - 천년의 강, 세력)
07:30 로보카 폴리	13:35 류티플 코리아 (은둔한 선비의 꿈, 소쇄원)	16:45 덩동덩 유치원1~3(재)	
07:45 꼬마버스 타요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7:30 로보카 폴리(재)	
08:00 덩동덩 유치원1~3	13:50 그림을 그려요2	17:45 꼬마버스 타요(재)	
08:45 부릉부릉! 부르미즈	13:55 캐니멀	18:00 생방송 특이! 보니하니1~4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9:00 소피 루비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09:15 출동! 슈퍼윈드		19:30 EBS뉴스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09:30 이암!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4일(음 9월 4일 己未)

<p>子 48년생 주어진 기회는 천재일우요, 구운일이라 할 수 있으니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60년생 겹치다 보면 중차대한 것을 망각할 수 있다. 72년생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84년생 알고 보면 굉장한 난제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7, 56</p>	<p>午 42년생 무의식적인 대응이 향후의 지속적인 위상을 좌우해버릴 수도 있다. 54년생 의외의 이익이 상당히 생길 수도 있다. 66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자. 78년생 생선장이 없다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4, 47</p>
<p>丑 49년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실행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61년생 어떻게 입장이 바뀌지 모르는 형국이다. 73년생 정도만 걸으면 아무런 하지도 없다. 85년생 문체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재고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0, 09</p>	<p>未 43년생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차체에 분명하게 분리해 두는 것이 편하다. 55년생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67년생 상충간 심리 재변에 갈망하는 대목이다. 79년생 시가지적로만 평가하러 들지 말자. 행운의 숫자 : 22, 48</p>
<p>寅 50년생 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 62년생 반면교사요, 타산지적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금과옥조가 될 수도 있다. 74년생 국제가 마음과 감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자. 86년생 더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23, 63</p>	<p>申 44년생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난처한 양태이다. 56년생 고통이 따를 것이니 단단히 각오해야겠다. 68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정차하게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80년생 마지막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행운의 숫자 : 59, 99</p>
<p>卯 51년생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아쉽다. 63년생 시기를 확실히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75년생 정확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을 것이다. 87년생 별로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따라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행운의 숫자 : 75, 76</p>	<p>酉 45년생 아는 바라 하더라도 확인과 점검을 습관화하는 것이 용이하다. 57년생 재반 여건을 조성하고 불 일이다. 69년생 적절한 형태의 사전 예방이 최상이다. 81년생 신신함은 있지만 아직 미숙함으로 인해서 불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26, 19</p>
<p>辰 40년생 관련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52년생 의존적이면 부작용이 생긴다. 64년생 급격한 변수가 보이니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76년생 행운을 부르는 사랑이 비친다. 88년생 지나치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행운의 숫자 : 58, 02</p>	<p>戌 46년생 주변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법이다. 58년생 가까운 이들의 평을 되새겨 보면 유익할 것이다. 70년생 의외의 일을 떠맡게 될 가능성이 큰 시기다. 82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7, 69</p>
<p>巳 41년생 확실한 조짐이 보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53년생 이중고에 시달릴 수다. 65년생 전반적인 구도의 축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 77년생 보류되었던 바가 재개되어 탄력을 받게 된다. 89년생 위기를 잘 넘기자. 행운의 숫자 : 73, 67</p>	<p>亥 47년생 겉모습과 실제의 형편은 확연한 차이가 있느니라. 59년생 원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1년생 단차게 보이니 확실히 개선하고 불 일이다. 83년생 일상의 체계에 충실하는 것이 유효하다. 행운의 숫자 : 70, 8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